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5년

Email: VoiceOfNM@gmail.com



한인회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인 여러분!

제 16대 뉴 멕시코 주 한인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김영신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
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거 이후 전 한인회와의
인수인계와 이 취임식 등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인사가 늦어졌음에 사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임 회장으로의 역할과 도움을
받을 분들과의 조율 등을 하느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잊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한인분들이 저보다 먼저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 한인회는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분들 모
두가 앞으로의 한인회에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인회는 여러분들의 염원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선거 관련 내용을 좀 더 보편 타당
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투명한 한인회를 위해 정기 총회와 재
무와 사무 감사를 골자로 하는 정관을 고쳐 나갈 것이고 한인회
업무나 행사를 이메일이나 한인회 사이트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

사진:산타페 미술박물관과 길가에 핀 꽃

2015년 5/6월호 내용

- 한인회장 인사 | 안녕하십니까? 한인여러분! : 1
- 한국학교 소식 | 한국학교 2013년 재정보고 : 2
- 한인회 /한국학교소식 | 한인회 1년 행사계획표/
- 한인회 예산 및 지출/ 한국학교2014년 재정보고 : 3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 교장 인사 : 4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종강식-동화구연대회 : 5
- 한국학교 학생 인터뷰 | 금발의 이화여대 장학생 : 6
- 수필 | 양 - 평화의 상징 | 이정길 : 7
- 성경|세례요한은 누구인가? |김기천 : 8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2) : 9
- 법률상식 | 한국법 가이드(2) / 상속에 관한 법률 : 13
- 교회 소식/부활절 |시편 낭독대회 : 15
- 뉴멕시코 한인회 회원 가입신청서 : 18
-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0

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역 한인들의 불편한 점이나 정보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정기 총회는 저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모두를 우수를 수 있는 입원과 이사회도 꾸리지 못하고 해서 발표가 늦은 것이라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관례들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신 한인 여러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불협화음을 시작 단계인 우리 한인 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는 힘들기에 나와 다른 이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한인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한인들 봉사를 위해서 입후보 했고 그런 저를 믿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잘 해나가는 지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강하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인회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지만 한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미

쳐 손을 내밀지 못한 한인회원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찾아와서 의견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하면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싶네요. 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회, 지난 앙금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이 새로운 한인회의 씨앗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김영신 올림

P.S. 한인 여러분들의 칸택 인포, 이멜주소를 포함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멜 오고가는 중, 조사해보니, 이사 가신분들도 있고, 이멜 주소가 바뀐 분들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효과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금 재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멜 받기를 원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멜 주소가 다르거나 하면, 여기 한인회 이멜 주소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mkoreancommunity@gmail.com

2013년 한국학교 재정 결산 보고

2013 수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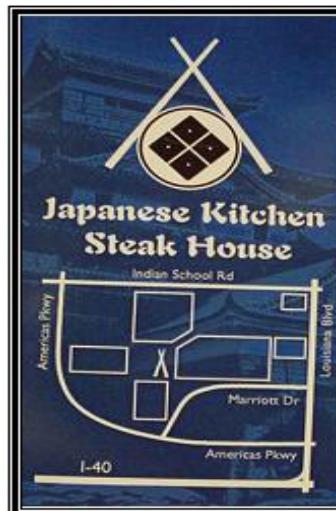
구분	금액
2013 봄 등록금	\$1,965.00
2013 가을 등록금	\$4,350.00
2013 봄 조규자 한인회장님 개인 후원	\$450.00
2013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3,000.00
2013 정부 지원금	\$4,433.00
2013 수입 총계	

2013 지출 내역

구분	금액
2013 일반지출 2013 봄 교사 사례비	\$2,550.00
2013 봄 물품 지출비	\$846.93
2013 가을 교사 사례비	\$3,793.00
2013 가을 물품 지출비	\$1,186.99
2013 일반지출 총계	

2013 특별행사 지출	
봄 LA 교장총회 참가비 지원	\$416.69
봄 교사특강 강사비 및 스낵	\$189.57
학부모 세미나 강사비 (총 2회)	\$100.00
가을 봉사자들 (2인) 감사선물	\$50.00
특별행사 지출 총계	\$756.26

2013 지출 총계	\$9,133.18	일반지출 + 특별행사 지출 합계
2013 Balance	\$5,064.82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꽁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한인회 1년 계획 및 행사표

From 04-01-15 To 03-

31-16

4월: 새 한인회장 취임식(4월 19일, 일))

5월: 부녀회 및 남성 장년회 모임 결성
 -목적: 한인회 활성, 각종 취미, 특기, 함께
 나누며 3개월에 한번씩 바자회 개최

6월: 한인회관 환경미화의 달
 -한인회관 청소, 정돈, 카페 샴푸, 페인트((6월 6 & 7일, 토&일))
 -밴드 초청 공연; 한인여러분들 활기 재충전 위해
 (“봉황단” 밴드 from Phoenix, AZ)
 Full 밴드로 다양한 음악 노래, 게임,
 코메디(6월 20, 토)

8월: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
 -한인 온 가족들 참여, 다시금 우리나라 한국의
 광복의 기쁨을 재현시키고, 연령별,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열어 상금,
 상품전달과 함께 큰행사를 가짐.

9월: 추석 잔치

11월: 김치축제(11월 7일, 토)

2016

2월: 대보름 잔치

뉴멕시코주 한인회 예산 및 지출

From 04-01-15 To 03-31-16

수입:

회장후보 선거후원금-----	\$ 3,000.00
이사회비-----	3,000.00
회원비-----	2,000.00
김치페스티벌-----	7,000.00
바자회-----	500.00
영사관보조금-----	2,000.00
기타후원금-----	1,000.00
총수입	\$ 18,500.00

지출:

빌딩융자금-----	\$ 9,480.00(@\$790/mo)
전기, 개스, 물, 전화, 인터넷 비---	3,120.00(@\$260/mo)
빌딩보험-----	480.00/yr
수리비-----	500.00/yr
경조비-----	500.00/yr
물품구매-----	300.00/yr
기타-----	300.00/yr
총지출	\$ 14,680.00

한인회 재정 현황 보고

현 잔액, 2015년 4월 30일, 현재

*한인회-----\$ 14,429.71

*한국학교-----\$ 3,124.49

*어버이회-----\$ 1,247.91

총 잔액: \$ 18,802.11

2014년 한국학교 재정 결산 보고

2014 수입 내역

구분	금액	총계	비고
2014 봄 등록금	\$4,215.00		
2014 조규자 회장님 교사 워크숍 지원	\$500.00		
2014 가을 등록금	\$7,113.00		
2014 정부 지원금	\$4,500.00		
2014 수입 총계		\$16,328.00	

2014 지출 내역

구분	금액	총계	비고
2014 일반지출 2014 봄 교사 사례비	\$4,250.00		
2014 봄 물품 지출비	\$1,096.06		
2014 가을 교사 사례비	\$6,741.00	(교장월급제도 및 교사학기말 수당제, 특별활동 교사임용제도입)	
2014 가을 물품 지출비	\$1,708.18	(교재 운송비 및 특별활동 운영/지원)	
2014 일반지출 총계		\$13,795.24	

2014 특별행사 지출

2014 LA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1,588.60
2014 온라인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지원	\$328.00
2014 교사 워크숍	\$825.96
2014 LA 한국교육원 방문 연수	\$169.69
2014 마켓데이 행사	\$537.50
2014 특별행사 지출 총계	\$3,44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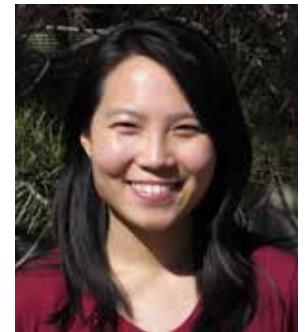
2014 지출 총계

2014 Balance 2014 수입총계 – 2014 지출총계 -\$916.99

신미경 교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신미경입니다. 그동안 뉴멕시코 한인들의 소식지인 광야의 소리를 통해 한국학교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며 교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한국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를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께 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와 동시에 제 개인적인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1월에 제가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번 2015년 봄 학기까지 지난 2년 반을 교장으로서 학교의 운영과 실무를 담당해 오는 동안 한국학교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과정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 7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우리 한국학교는 현재 4~5세의 유아반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수업에 등록한 비한국인 학생,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 온 한국계 청소년 학생, 한국계 성인 입양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의 어느 큰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폭넓은 학생층을 아우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이렇듯 다양한 학생들의 각각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경쟁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타 주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재원, 자원이 열악한 뉴멕시코 주의 유일한 한국학교로서 그간 학교가 해왔을 고민과 성장 과정에서의 도전 및 시행착오들, 재정 확보를 위한 학교 운영진의 고군분투 등은 구구절절이 이곳에 적지 못한다 해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렇듯 어려움이 늘 현실인 상황 속에서도, 학교가 보다 나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한인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중요한 목표에 매진하기 위해 한국학교 교장의 직위를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다시 UNM의 학생으로 돌아가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면서 제 개인적 소망인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봄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저는 한국학교의 교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 모든 것을 다해 경험하고 부딪쳐 온 교장으로서의 시간들은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여 이제부터 저의 바람은 한국학교에서 지난 4년간 교사로서 가르쳐 왔던 경험과 학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학교에 지속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학교의 발전과정을 계속 함께할 수 있다면 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교장으로서 모든 교민 여러분께 앞으로도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 교장 채용 공고

직급 :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 교장 (1인)
학교 내 교장 정규 근무시간
토요일 오전 9시 15분-오후12시 15분을 포함하여 전,후
주중 하루 (현재는 금요일) 오후 5시-7시를 포함하여 전,후
급여: 교장업무 \$350X8개월 + 인센티브 (수업을 맡는 경우와 전체 학교 학생 수 증원 시)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자유양식)를 한인회장에게로 제출

〈아리조나 타임즈〉 뉴멕시코판 개설

〈아리조나 타임즈〉가 “뉴멕시코판”을 개설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알바커키는 아리조나 피닉스와 차로 6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걸리는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매주 보도되는 뉴멕시코와 아리조나의 뉴스와 정보를 통해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해 비즈니스 활성화를 꾀함으로 함께 윈윈(Win-Win)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뉴멕시코 교민들은 피닉스의 많은 한인업체들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의 정보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고, 아리조나 교민들은 뉴멕시코로의 여행, 비즈니스 확장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지는 지난 4월23일(지령 567) 첫 기사를 내보내고 시험발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뉴멕시코 달달 이은주 기자가 활발한 활동으로 뉴멕시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뉴멕시코 뉴스는 각 식품점에 배포된 신문이나, 웹사이트 (www.KoreanAZtimes.com)를 통해 행사기사, 행사사진 및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뉴멕시코 지역 독자발간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다가가서 하나의 생활권을 사는 이웃으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발행인 장재원

기사제보

이은주 기자

전화 : 505-903-2296 이메일 : Danbeega@hotmail.com

2015 토요반 봄학기 종강식

-제1회 동화 구연대회-

이번 학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공부외에도 미술, 음악, 과학, 종이접기, 전통놀이, 요리 등의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한편 집중적인 말하기 활동으로 한가지 동화를 정해서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강일에는 준비한 동화를 가지고 제1회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개인별, 반별로 대회에 참석했고 그 중 개인별 대회에서 수상한 세 명의 학생들에게는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박효진 (8살), 금상: 황수호(14살), 이민하(12살) ■



왼쪽부터 이민하, 박효진, 황수호



미(美) 고교 수석 졸업 금발의 여학생 이화여대 이공계 2년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이공계 고급 인력들을 둘러싼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두뇌 유출'은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들이 외국에서 유학 후 그 나라에 정착하기로 함께 따라 한국에 금전적 손실 및 우수 인력 손실을 초래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이번에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오던 한 백인계 여학생이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부 생명과학과에 2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현재 한국 내 한국 인재들의 두뇌 유출 현상과 극히 대비되는 일로 재외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 한류 열풍과 맞물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이례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만큼, 이것을 계기로 우수한 비한국계 인재들이 역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함께 전하면서 이하는 해당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영(한국 이름), Marion Gerhart입니다. 저는 뉴멕시코 에지 우드에 사는 18살 학생으로 이번 5월에 Moriarty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Q: 고등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A: Honor Roll, Academic Letter 등의 수상을 했고 National Honor Society 멤버이며 지난여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연구소 중 하나인 샌디아 국립 연구소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 내내 1 위를 해왔고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요?

A: 이화여대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공부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장학금도 받게 되어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Q: 어떻게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되었고 학교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A: 처음에 엄마가 유튜브를 통해 '샤이니(SHINee)'라는 K-Pop 그룹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곧이어 한국 드라마와 러닝 맨 같은 프로그램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점점 빠지게 되었는데, 마침 뉴멕시코 주의 김치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Q: 한국학교에서는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나요? 또한, 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A: 2013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즐겁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 시작할 땐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지만 갈수록 자신감도 늘고 새 친구도 생겼고 선생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Q: 반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다양한 동사를 배우면서 어휘력을 늘려가고 있어요. 종강일에 있었던 동화 구연대회를 위해 '작고 빨간 암탉'이라는 동화와 반별 장기자랑으로 개그콘서트 '맛있는 한국어'를 준비했어요.

Q: 학교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A: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종대왕이 백성이 글을 깨우쳐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Q: 한국의 많은 대학들 중 이화여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러닝 맨'을 보다가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화여대는 아시아의 여러 대학 중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학교로 제 미래를 꿈꾸기에 좋은 학교라 여겨졌고 또한 여러 학교중 장학 제도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Q: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늘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어를 배워본 경험자로서 한국학교나 교민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이 있다면?

A: 먼저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도와주신 것에 매우 감사해요. 한국학교는 제가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장소였고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또 추천서를 잘 써 주신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는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과 뿌리의식을 존경해요. 한국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돋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인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주신 한인회와 학교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학교가 정말 좋아요. ■

수필 12지 (十二支) 동물 시리스 #8

양 - 평화의 상징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양은 순하고 어질고 착하고 참을성 많은 동물이다. 욕심이 없어 여러 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 길러도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무릎을 끌고 어미의 젖을 빼는 효성스러운 동물이다. 평화로운 동물이어서 싸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며, 갓던 길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면도 있다. 상형문자 양은 맛 [味], 아름다움 [美], 상서로움 [祥], 착함 [善] 등의 좋은 뜻을 가진 한자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큰 양 즉 대양大羊이 줄어들어 美가 되었으며, 내 [我] 가 갖추어야 할 미덕 [羊] 이 곧 의로움 [義] 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동물이 포함되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데가 있다. 계다가 염소를 산양이라고 불러온 탓에 옛 문헌의 내용에 불분명한 곳도 많다. 이 글을 쓰려고 문헌을 정리하면서 헷갈릴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양은 면양을 말한다. 한자대전의 ‘羊’ 자를 찾아보면 sheep 이라고 부연되어 있다. 몸 전체가 회백색 꼽슬털로 싸여있어, 섬유로 쓰는 양모를 생산하려고 세계 각지의 넓은 목장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가리킨다. 고기와 가죽도 생필품으로 쓰였다. 양은 풀의 밑동까지 뜯어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계절의 이행에 따라 유행방목을 시키는 목장에서는 사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소가 풀의 잎동을 먹고 지나간 초지에 면양을 몰아 넣는다. 넓은 초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양의 수는 아주 적다.

염소는 모양부터가 면양과 다르다. 갈색, 백색, 흑색 등의 곧은 털을 가지고 있다. 아주 험한 산악지대에도 잘 적응하며, 먹이도 솔잎이나 덩쿨져 올라간 칡 등, 위에 달린 것들을 따 먹는다. 그래서 건초도 매달아 주어야 빼 먹는다. 우리 나라에 젖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젖염소를 많이 길러 젖을 생산했다. 지금은 주로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한다. 고기는 보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한방에서 원기가 부족한 사람의 약으로도 많이 쓰였다.

산양은 염소와도 양과도 다른 애생동물이지만, 양보다 염소 더 가깝다. 천연기념물 제217호이며 회갈색 털에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다. 깊은 산 속 높고 험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의 눈에 띠지 않는다. 풀, 나뭇잎, 각종 열매, 줄기성 식물 등을 먹고 산다. 시베리아와 만주에서도 서식하는 산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 살며 멸종 위기에 놓여있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동물이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흰색의 로키산 산양이 야생하고 있다.

삼한시대에 양을 식용했다는 기록과 함께 낙랑출토품에서 양 장식이 보이기도 하지만, 십이지의 다른 동물에 비하여 양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인연이 적은 동물이다. 명복을 비는 의미로 묘 주변에 돌로 새긴 양 [石羊] 을 세웠다. 해안지역에서는 새해 첫 양날인 상미일上未日에 출향을 삼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염소가 경솔해서 그날 출향하면 해난을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상미일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믿음에 약도 먹지 않았다. 대신 이날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가 없다고

믿었다. 양이 온순한 동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꿈에 나타나는 양은 선인이나 진리 또는 재물을 상징했다.

양띠의 사람은 온순하며 침착하고 욕심이 없다.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며,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 교사, 언론인, 예술인 등의 직종에 알맞다. 반면 결정을 내리기보다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성향을 나타내며, 쉽게 감상에 빠지고, 가까운 사람과 곧잘 담을 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순한 이미지가 강하며, 인정이 많아 평화주의자가 된다.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흔히 행운도 따르는 사람이다. 양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많았던 탓에 양띠를 염소띠라 부르기도 한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를 ‘길 잃은 양’이라고도 부른다. 양두구육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처럼 양은 악하고 순하며 선한 존재였다. 반면 염소는 남의 죄나 뒤집어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악인을 지칭했다. 우리는 염소의 턱에 난 수염, 머리에 솟은 뿔이 학자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았지만, 서양문화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다. 속죄의 날에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머리에 짊어지워 아자젤에게 바친 그 희생양 scapegoat는 ‘희생염소’ 라야 맞는 표현이다.

뉴질랜드는 인구보다 양의 수가 훨씬 많은 나라다. 비행기에서 넓은 초원을 내려다보면 파란 풀밭의 하얀 양들이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양들을 ‘목초지의 구더기’라 부르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구약성서 이사야 65: 25에 나오는 평화로운 새 세상이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



뉴질랜드의 양

세례요한은 누구인가?

1. 요세푸스가 증거하는 요한: 유대인 역사가이자 군 장교였던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죽임을 당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한의 성격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서로에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는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였다. 세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생활은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또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올바른 행동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을 의미하는 몸의 헌신으로 세례를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 요세푸스는 자기표현 방식으로 요한의 세례가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요세푸스는 요한을 도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평범한 설교자로 묘사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위의 내용이 요세푸스가 직접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어떤 사람이 삽입시켜 놓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거의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문을 요세푸스의 진본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본문이 전달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필경사들에 의해 수정이나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가 작가로서 자신의 의도나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반드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세푸스는 로마에서 플라비안(Flavian) 황제의 비호 아래 로마에서 일했다. 그의 기록 목적은 주후 66-73년경에 있었던 유대인 반란으로 생긴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사상이 비유대인들보다 더 지성적임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입장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요세푸스의 작품이 보여주는 다른 특징은 유대인의 종말론을 누그러뜨리거나 그 종말론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요한의 설교와 세례는 종말론적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세푸스는 요한의 사역에서 이런 점들을 제거해버리고 요한을 대중적인 유대 설교자로 만들었다. 요한이 이런 평범한 설교자였다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폭동의 주동자로 취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세푸스는 자서전에서 요한의 사역을 연상하게 하는 자신의 은둔 생활 경험에 관해 간략하게 썼다. “Bannus란 사람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는 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옷을 입고 나무에서 자라는 것을 먹었으며 정결해지려고 찬물로 밤낮 목욕을 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 그와 함께 3년을 살았다.” Whiston은 여기 언급된 Bannus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는 요한의 삶이나 설교에 의하면 요한은 과격한 종말론자였을 것이다. 그의 과격한 설교는 당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을 것이다. 선동에 가까운 그의 설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당시에 정치가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였을 것이다. 로마의 비호를 받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요한을 소개할 때에 요한의 사역에서 과격한 종말론적 요소를 제거한 후 요한을 마지막 평범한 설교가처럼 소개했다.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 쿰란 종파와 요한의 관계: 요한이 세례를 베푼 지역과 가까운 곳인 쿰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자료들은 엣센파(Essene)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엣센파들은 주전 2세기 후반에 형성되었으며 얀네우스(Alexander Jannaeus : 주전 103년부터 76년까지) 통치기간 동안 나라 전 지역에 퍼진 종파가 되었다. 주전 31년경에 지진이 일어난 후부터 아켈라오 통치 때까지(주전 4년에서 주후 6년까지) 쿰란 종파들의 거주하던 건물들은 점점 축소되거나 완전히 버려졌다. 이후로부터 주후 66년경에 발발한 유대 전쟁(Jewish War) 3년째까지 그 건물들이 점점 복구되어 다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주후 68년경에 쿰란의 건물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전소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쿰란 자료들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 쿰란 종파와 어떠한 관계였는지 알 수가 없다.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는 점들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쿰란 종파나 세례 요한 모두 광야에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다. 그러나 요한은 쿰란 종파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한 새로운 종파를 만들지도 않았다. 누가복음 3:10-14절을 보면 오히려 요한은 모든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권했다. 요한의 설교에 대해 거의 알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엣센파(Essenes) 중에 제사장 묵시주의(priestly apocalypticism)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쿰란 종파들은 단체 규율(The Community Rule)에서 이사야 40:3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쿰란 종파 사람들은 이사야 40:3절을 모세 시기와 연관시켜 해석했다. 또한 이 구절이 말하는 광야에 있는 완전한 길에 대한 이사야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성전이나 사두개파 제사직에서 물러나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운동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요한과 쿰란 종파 사람들과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만한 자료가 없다. 단지 요한이나 쿰란 종파 사람들 모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금욕주의적 생활을 했다. 그러나 요한은 세상과 결별하고 단체 생활을 했던 쿰란 종파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한가운데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했다.

3. 복음서에 서술된 요한: 신약성경의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제시한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의 사역을 위한 전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복음서 기자들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도 조심스럽게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구별한다. 예수가 요한을 찾았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와 요한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요한의 설교와 세례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마 3:1-6, 막 1:2-6, 뉴 3:1-6, 요 1:19-23).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17쪽으로 계속>

행복한 미국생활 #2

미주생활 가이드북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스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부)

1-4 입국심사와 비자의 명칭 (Type of Visa)



"요즘은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 견우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를 전한다.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인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지내는 동안은 신분에 대해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지만,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arriving alien"으로 분류되어 영주의 의사와 정황을 확인하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영주권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과거의 범죄라든지 아니면 취득후 갖게된 전과 기록 때문에 입국 심사후 별도의 방으로 갔다가 조사끝에 추방된 사람도 있었다더군." 연오가 맞장구를 친다. 시카고의 오해어 공항의 경우 입국심사대는 비행기에서 내려 들어오면 양쪽으로 나뉘져 총 60여개가 있는데 2차 심사대는 조금 더 들어와 baggage claim 옆의 가운데 방에 있다. 2차 심사대로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는데 지시대로 따른뒤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차례가 되면 심사관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2차 심사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거의 입국이 된다. 2차 심사의 대부분은 1차 심사에서 인터뷰가 길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심사대로 들어감으로써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근 방법은 예컨데 음주운전기록이나 경범죄 기록에 대한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한 뒤 보여주는 것이다. 지문 날인으로 뜨는 정보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입국심사를 마치면 심사관은 비자에 맞추어서 여권에 비자의 타입과 미국에 언제까지 체류할수 있을지 날짜를 써주게 되어있다.

"종교비자를 R 비자라고 하잖아. 내가 가방끈은 짧아도 Religion 이 종교하는 단어 인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줄여서 부르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방문비자는 왜 visiting 의 V 비자가 아닐까 싶어 B는 도대체 무슨 영어단어일까 궁금해 한적이 있어."

견우의 말에 연오도 웃음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알파벳뒤에 붙는 숫자도 복잡해. 우리가족은 내가 주신청자로 해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한적도 있고, 아내가 대기업 미국주재원으로 들어오면서 L-1주재원 비자를 넣은적이 있는데 그 가족들 한테 주는 비자숫자가 원칙이 없더라고. 취비자의 가족은 H-4이고 주재원 가족은 L-2라고 적혀 있더라고."

전문가의 한마디

이민자를 위한 알파벳스프

이민자 한분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민자의 신분명칭에 대해 일종의 내기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의 핵심은 ,E-1 비자의 배우자 비자가 E-1인지 E-2인지 아니면 E-3인지 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이민법 이슈를 가지고 내기까지 하게 된 사연이 더 궁금했지만, 어쨌거나 답변을 드렸고 그 이민자분이 내기에 지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1-5 이전우의 학생비자 변경 (F비자)

영주권자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 세종로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방문비자 면제의 경우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알파벳과 숫자 하나씩으로 구성된 비자 타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경우, 학생본인은 F-1을, 동반가족은 F-2라고 적힌 비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쉬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F는 학생에 해당하는 어려운 단어의 약자이고, 그 뒤에 본인은 1을 붙이고 가족은 2를 붙이는 모양이군. 숫자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대학교수 등이 미국에 연수차 올 때 받는 J-1과 그 가족의 J-2, 그리고 해외지사로 파견나오는 주재원 본인의 L-1 비자와 가족의 L-2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면 제가 이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지요.

비즈니스 또는 관광목적의 비자는 B-1/B-2라고 한꺼번에 적힌 비자를 여권에 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등 동반가족과 역시 B-1/B-2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전문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동반가족은 H-2가 아니라 H-4이고 저명한 학자등이 받는 O-1비자의 가족에게는 O-3를 줍니다.

흔동의 원인은 다름아닌 원칙없는 이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제 101조 (a)항 15절 항목 A부터 V까지에는 우리가 미국에 영주권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비이민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알파벳이 무슨 단어의 약자라도 될까 생각하시지만, 관광비자가 B가 된 것은 단지 미국이민법 제 101조(a)항 15절 항목 B에 관광목적의 체류자에 대한 정의를 써 놓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비즈니스와 관광목적을 별도로 나누지 않았는데 해석상 B-1/B-2로 나누고 비자를 찍어줄 때는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관광차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여행목적을 들어 보는데 별 생각 없이 비즈니스 차 왔다고 하면 하얀색 출입국 카드에 B-1이라고 적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지는 1개월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항목 F 아래 다시 세부항목 (i)에서 학생본인을, (ii)에서 동반가족을 정의하고 있어 F-1, F-2 비자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H 비자의 경우 (i) B 항목에 전문직위업비자, (ii) 항목에 농업취업비자, (iii) 항목에 연수생 비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세부항목 (iv)가 없지만 여기서는 가상으로 할당하여 H-4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E비자에 이르면 그 혼동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E비자는 세부항목 (i)에서는 무역을 많이 하는 회사의 파견자가 받는 비자를, (ii)에서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받는 비자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E-1은 무역인비자, E-2는 소액투자비자가 되었습니다. 동반가족은 H 비자처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H의 사례를 따라 E-3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헷갈리게도 본인의 신분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1비자의 가족은 모두 E-1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교양서가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민자를 위한 알파벳 스프는 재미는 없고 복자하기만 합니다.



이전우와 강연호는 마치 학생생활이 다시 찾아온 듯 텁나면 만나 지나온 시절을 나누었다. 시카고는 뉴욕과 엘에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한인사회로 오래 전부터 로렌스 길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왔고 최근에는 교외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카고의 최근 한인타운이 있는 골프길과 밀워키길 사거리 근처의 식당에서 치킨과 맥주는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6개월이 금방 가더라고, 방문비자를 한번 연장했지. 그나마 요새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연장이 거의 안된다고 하대. 다시 받은 6개월도 금방 가는 거야. 뭔가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택도 없더라고. 신분유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 뿐이더라고, 근데 재가 어디 보통 미국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근처에는 비단 한국인 뿐 아니라, 영어를 배우면서 신분도 유지하려는 동유럽, 남미, 그리고 아시안들을 위한 영어학원이 성황이다. 이렇게 생긴 학원들도 대학처럼 국제학생들을 받을 때 I-20라는 입학허가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러한 권한을 가진 학원들을 많이 허가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다니지 않는 타주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돈만 내면 마치 학교에 다닌 것처럼 적용되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경향이다.

“그래서 어디를 다녔는데?” 연오의 질문에 견우는 말을 이었다. “대도시에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한국계 유학원들이 있잖아, 여기서는 영어도 배우면서 신분을 유지하려는 이민자들 편의를 조금 봐주지, 학원에는 나같은 사람들과 조기 유학 나온 아이들 따라 나온 엄마들로 많을 때는 한국사람만 수백명까지 되었다니까.”

전문가의 한마디 조기유학과 학생(F)비자

알파벳 F는 다양한 단어의 약자로 쓰입니다. 저는 Fighter의 약자를 쓰는 한국공군의 가장 오랜 전투기 F-5나 전폭기 F-4가 먼저 떠오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꽃미남을 일컫는 F4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경주 대회인 Formula 1의 약자 F1이 머리를 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법에서 F는 학생비자를 말합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비자의 F는 어떤 단어의 약자가 아니라 학생비자를 규정한 이민국 조항에서 온 것입니다.

한인이 일정 규모가 넘는 도시에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규모의 어학원이 어디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비교적 쉽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생신분이기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자녀가 직접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F-1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F-1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F-2로 체류도록 하는 방법도 흔합니다.

F-2비자란 학생비자 신청자(F-1)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반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역시 동반가족으로서 F-2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를 F-1으로 미국에 보내는 경우 아이를 돋기위해 어머니가 동행하는 비자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학생비자 신청자를 따라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의 친인척은 F-2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아이를 미국사립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F-1를 받게 하려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는 별도로 어학연수 등을 하며 F-1등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재학중인 F-1자녀를 위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부모동반자가 없다는 것은 뜻밖에도 일반인이 가장 모르는 이민법 지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반할 수 없다면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대개 미국내 후견인(Guardian) 선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가 F-2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민법 규정은 특별히 F-2 자녀들이 공립학교, 즉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큰 혜택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F-1 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비이민신분을 얻어 이에 대한 동반신분(예컨대 E-2자녀, L-2, R-2, 혹은 H-4 등)을 얻지 않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2자녀, L-2, R-2, 혹은 H-4 등의 다른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21세 까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 비자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공립학교에 F-2 신분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F-2비자는 미국에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일리노이주의 경우 임시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I-20 와 F-2 승인서류 등을 제출하여 일부 DMV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임시 면허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6 학생비자의 유지와 노동허가(SEVIS, OPT)



“공부하는 동안 생활은 어떻게 했어? 한국에서 돈은 좀 가져 왔니?” 연오가 견우에게 묻는다. 유학생시절 비싼 석박사과정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연오는 견우의 지난 시절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다행이 여기 영어학원은 학비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였거든, 돈보다는 시간을 내어 학교를 다니는게 더 힘이 들었지, 학교들이 학생들 사정 봐준다고 학사 관리를 아주 빽빽하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서 내가 다녔던 어학원도 학생 비자발급권한을 박탈당했다고 하더라고.” 지난 2002년 911 테러 사건 당시 범죄자가 비행학교에 학생비자로 있던 외국인이었으니 드러나면서, 이민국을 모두 학교의 재량에 맡겨 두었던 학생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 하여 이른바 SEVIS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들이 학사관리를 느슨히 한다는 지적이 많아 상당히 많은 학원들에게 I-20를 통해 학생비자를 부여하는 권한을 박탈한바 있다.

“어학원도 과정을 마치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지, OPT였던가? 나도 석사과정 마친 뒤 OPT 노동허가를 받은 동안 인턴을 하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했었지, 운이 없어서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학생비자 기간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개인재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보여야 승인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견우가 방문비자로 일단 입국한 뒤 학생으로 신분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미국 이민국은 견우의 한국내 재산 및 미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잔고 증명 등을 보아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와 학비 이상임을 확인하여 허락을 한 것이다.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학중에 예전 한국의 근로장학생처럼, 특별한 사정을 학교로부터 인정받아 노동허가를 받는 방법과, 졸업전후에 배운 것을 통해 실습으로 일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라고 허락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졸업후 노동허가가 이민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인 OPT이다.

전문가의 한마디 학생비자와 OPT

미국취업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나온 많은 유학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나 경영학 쪽으로 유학온 경우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별문제 없이 취업하여 미국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취업한 분들도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졸업후 직장 잡기가 별 따기입니다. 그동안 학생비자가 미국내 취업을 위한 좋은 방편이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졸업후 1년간 주어지는 현장실습허가, 이른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였습니다. 졸업후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 1년동안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OPT는 별도의 신분은 아니고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면서 받게되는 일종의 노동허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민국은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OPT 개정으로 유리해 진 것은 첫째 STEM이라는 약자로 표현되는 순수과학, 공학 등 주로 이공계 유학생들은 기존의 12개월 후에 17개월을 더해 최대 29개월 까지 OPT를 사용할수 있게 된 것과, 둘째 취업비자를 신청 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비록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전에 OPT 카드가 종료되더라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릴것은 17개월 연장신청을 할 상황인 경우, 1년 종료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17개월 승인 전에도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연장된다는 것과, 해당고용주는 E-verify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여 그 등록번호를 I-765 신청서에 적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개정내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불리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즉 OPT를 받은후 미취업상태가 90일 (STEM의 경우는 120일)이상 계속되면 허가된 OPT가 자동 최소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즉 1년동안 아무일도 하지않고 일자리만 알아보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90일

미취업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의 OPT 기간중 처음 두달동안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직장을 구하여 일하다가 또 한달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OPT 기간중 미취업상태로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해외 체류기간도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포함됩니다.

90일 이내에 풀타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면 과연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경우 취업이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 (volunteer)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국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자원봉사가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서류를 받아 놓기를 권합니다. 둘째 반드시 고용/피고용의 관계일 필요는 없고, general contractor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되는점입니다. 셋째 자신이 직접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 Full-Time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지니스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어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미국 비자의 종류

비자타입	누 가	얼마나
A	A-1 외교관 및 가족	D/S (Duration of Status, 체류에 필요한 만큼)
	A-2 기타 공무원 및 가족	D/S
	A-3 A-1/A-2 동반비서 및 가정부	처음 3년/2년 연장가능
B	B-1 사업상 방문	최장 1년/6개월 연장가능
	B-2 여행 방문	대개6개월/6개월 연장가능
C	C-1 미국 경유	입국시 마다 29일
	C-2 UN 경유	입국시 마다 29일
D	C-3 미국을 거쳐 타국으로 가는 외국정부 공무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단기
	D-1 승무원 (선박 또는 항공기)	입국시 마다 29일
E	D-2 원양어선 선원	입국시 마다 29일
	E-1 무역인과 가족	2년/2년씩 연장가능
F	E-2 소액투자자와 가족	2년/2년씩 연장가능
	F-1 인기받은 학교의 학생	D/S
G	F-2 F-1의 가족	D/S
	G-1 국제기구 한국 주재원과 가족	D/S
H	G-2 국제기구 기타 대표자와 가족	D/S
	G-3 미국이 비인정한 국제기구 주재원	D/S
I	G-4 기타 국제기구 직원, 그 가족	D/S
	G-5 G1/G2/G3/G4 동반비서및 가정부	처음 3년/2년 연장가능
J	H-1B 전문직 근로자	3년/3년 연장가능
	H-2A 계절 농업노동자	12개월미만/최장 3년
H	H-2B 임시노동자	12개월미만/최장 3년
	H-3 트레이닝 받는 사람	트레이닝기간/최장 2년
I	H-4 H-1/H-2/H-3 가족	H1/H2/H3와 동일
	I-I 기자 및 특파원	D/S
J	J-1 교환 방문자	D/S,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J-2 J-1 가족	D/S

비자타입	누 가	얼마나
K	K-1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후 90일내 결혼
	K-2 약혼자의 미성년자녀	입국후 90일
	K-3 시민권자의 기혼자	2년
	K-4 기혼자의 미성년자녀	K-3와 동일
L	L-1A/L-1B 해외주자원	최장 7년/5년
	L-2 L-1의 가족	L-1과 동일
M	M-1 직업학교 학생	D/S
	M-2 M-1의 가족	D/S
N	N-8 SK-3 “특별이민자”의 부모	처음 3년/3년 연장가능
	N-9 N-8, SK-1, SK-2, SK-4의 자녀	처음 3년/3년 연장가능
O	O-1 과학, 예술, 교육 또는 운동분야 특수재능 소유자	처음 3년/1년 연장가능
	O-2 O-1의 동반근로자	O-1과 동일
	O-3 O-1/O-2의 가족	O-1/O-2와 동일
P	P-1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인/팀 운동선수와 공연단체	개인: 처음 5년/5년 연장 단체: 처음 1년/1년씩 연장
	P-2 상호 교환프로그램의 예술가/예능인	처음 1년/1년 연장가능
P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예술가/예능인	처음 1년/1년 연장가능
	P-4 P-1/P-2/P-3 의 가족	P-1/P-2/P-3과 동일
Q	Q-1 국제문화 교환 방문자	최장 15개월
	R-1 성직자 및 종교기관 종사자	2년반/최장 5년
R	R-2 R-1의 가족	R-1과 동일
	S-1 국제형사 사법공조협조 입국자	제한 없음
T	T-1 인신매매의 피해자	제한 없음
	T-2 T-1의 가족	제한 없음
U	U-1 범죄대상의 피해자	제한 없음
	U-2 U-1의 가족	제한 없음
V	V-1 LIFE Act 관련자	제한 없음
TN/TD	북대서양조약기구(NAFTA) 회원국 (캐나다, 멕시코)의 전문직근로자	처음 1년/1년씩 연장가능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2

아래에 소개하는 한국법 자료는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 발행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본 설명 자료 내용에 대해서 주 LA총영사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률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 민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편집부)

4.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서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⁹⁾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끝내고 구체적으로 누가 상속재산을 소유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거나 제3자가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누가 소유할지, 상속을 포기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말로도 할수 있으나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상속 재산 분할협의서⁽¹⁰⁾)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법원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여 달라고 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¹¹⁾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인 피고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됩니다.
-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 분할 또는 현물 분할이 부적당할 때는 경매 후 현금으로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예를 들어 상속인 A, B, 2명이고 상속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A, B는 위 부동산을 $\frac{1}{2}$ 쪽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은 본 책자 49쪽에 있습니다.

(1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는 본 책자 50쪽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채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이 됩니다.
 -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 채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 (3)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 상속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상속 순위의 사람에게도 상속 포기 사실을 알려주어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상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이 이루어 진 후 자신이 물려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서나 상속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6. 부동산 상속시 필요한 서류

- 가. 단독 상속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신청서 부분, 등록세 영수필화인서, 토지나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신청서부분, 등록세 영수필화인서, 토지나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12), 인감증명서13).
- 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미국국적 증명서류(시민권), 거소신고증(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 성명 변경이 되었을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하여 줄 서류(제적등본에 상속인이 표시되어 있으면 제적등본 사용 가능).

(12) 공동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인 경우 전원이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1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만약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7.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

가. 개요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 재산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은 경우	토지자산	조상땅찾기
	금융자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2. 다른 상속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상속 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 회복 청구	
3.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못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나. 상속 재산 찾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토지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손 중 상속인만이 가능하고,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에 의한 조회도 가능한데 이때는 상속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1장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대한민국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청에서, 사망신고 저이라면 대한민국 전국 시, 군, 구청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은행, 우체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금융 재산은 물론 금융 채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과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과 한국 국적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미국 국적자인 경우 분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에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 공동 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 상속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의 상속을 받은 경우 등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¹⁴⁾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¹⁵⁾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재산을 침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넘긴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은 위에 쓰여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한국에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최소한 유류분 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이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¹⁶⁾을 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설혹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등기를 확인한 날입니다.

(15)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16) 유증이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상속세

-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

시편 낭독 대회

지난 4월5일 부활절 주일에 있었던 속별 장기 경연대회에서 온유속은 지역 사투리 시편낭독 대회란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모았었다. 그때 사용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남는 지면에 그때찍은 사진 몇장도 함께 소개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여 KUMC 주체로 제1회 “전국 시편 낭독 대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차도남 인 “허 병석” 인사드립니다. 100:1 이었던 치열한 경쟁률을 거치면서 본선에 오른 6명의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든디 나오셨단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깨로
나는 모자란게 없단깨로. 시퍼런
잔디 깔끄막에 두려
누시고 둔벙가상으로 데꼬가셔
분께라우, 나의 거시기를
거시기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해보는 것은요잉 자그 거시기
땀시로 라구요. 내가라우
디질뻑한 골짜 한 귀퉁
머리에서도 허벌나게
껌껌한데서도 간땡이가
부어가꼬 맹기는 것은
말이요잉 그 힘이



겁나게 오져부려 딴계요. 주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홱 지켜불고 나의 모질이 원수 앞에서 나를 겁나게
키워주신당께요 나의 인생이 아무리 겁나게 거시기해도 그
냥반이 만날 지켜 주실거랑께요. 나는 거시기가하도 그 냥반
옆에 오지게 붙어가꼬 디져도 안갈게랑요, 참말이란께요.
태클 한번 들어와보슈. 확, 그 냥반 한테 찔러 불랑께... 아멘,
아멘이란께요

참가번호 4 박 용숙(충청도 대표) : 충청도 토백이지만
말이 엄청나게 빠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사
마 담담할 끼 없데이 시-
퍼런 풀구딩에 내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까로 낸로
이끈신데이 내 정신챙기시사
올케 살라카심은 다 저그
체면 때문이라카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디기
껌껌한데서도 간띠가 부어
맹길 수 있음은 그 뺨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 주의
몽디-와 짜대기가 낸로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맥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유.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어푸러지게하시며 니나노하기 딱좋은 둔벙 가생이로
인도하여주셔유. 지 영혼을 살려주시구유, 그분의 합짜를
위하여 의의 질루 인도하시는 것이지유 지가 죽어 나자빠질도
모를 깡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맹겨두 해꼬지를 무서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유. 하마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유. 주님께서 지 웬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정도로 잔치를 여시구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돌바를 모르겠네유. 시방두 지
잔이 넘치네유 지 평생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루 지를
따라맹길모냥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것시유.

참가번호 1 유금님 (서울 대표):

왕년에 KBS 아나운서를 꿈꾸셨던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가번호 2 현 명희 (경상도 대표): 마, 겁나게 세련된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사
마 담담할 끼 없데이 시-
퍼런 풀구딩에 내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까로 낸로
이끈신데이 내 정신챙기시사
올케 살라카심은 다 저그
체면 때문이라카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디기
껌껌한데서도 간띠가 부어
맹길 수 있음은 그 뺨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 주의
몽디-와 짜대기가 낸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자슥 앞에서 낸로 팔팔
키워 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타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끼니까 내사 우짜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떠날란다.

참가번호 3 박 영교 (전라도 대표): 오메, 동네 이장님..

참가번호 5 현 용규 (평안도 대표):

아주 어렵게 비밀리 평양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잔데 뭐
~이가 부족하간~? 거저
~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
않나. 목마르문 거저 물가로
데리가딜 않나.. 야, 뭐~
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저저
똑바루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땜에 기러시는
거래두만. 음침한 골짜기
가빈? 넷날엔 거이
무서워뜨랜는데 거 이젠
하나두 안 무서워야. 거
주님이 거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이루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야... 거럼! 보라우 거 아구 악
~척 같은 웬수놈들 있다? 아 그놈들 보란듯이 거~저~~
아, 우리 주님이 내앞에다 거저 잔칫상을 떡~하니 벌려
주디않았간? 거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 주시면서 거저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는 거야. 야 기리니까 거저, 생각해
보라우 얼~마나 속이 시원했간~이? 기티 않았가서? 긴데다가
야 또 보라우- 기거이 한 번만 기러는거이 아니래~ 야 거저 내
평생 내 편이래, 야 내래 거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기루 해서...



와따시가 사망에 음므씀드한
고르짜기로 다녀도 “앗
스미마센. 스미마센, 혼도니
혼도니 고아이데스!!!
왜냐하면 제가 심므장이가
약해서-데모, 주께서 와따시와
하므께 하시므데스. (도우모
아리가도우 고자이 마스.)
사이고니,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아- 이것
끌나고 성경공부가야겠당.
사요나라!!!



* 다들 은혜의 시간
되셨는지요. 이번에는 시편
23장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실 “형재영형제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 형재영형제님 감사합니다.
참가자 모두 앞에 나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참가번호 6 오정희 (재일교포대표): 독도는 우리땅 협회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와따시는 “도그도(독도) 우리땅의 협회에 총우무(총무)를 맡고
입니다.(있읍니다)

시편의 이십의 사무장 (시편 이십삼장)

여호와가 와따시노 목그자 데스네-.그러니까아 나는 난니모
이라나이데스.. 가래가 와따시를 아오이 초그장에 누이시며
무르가로 무르가로 (물가로) 앗! 스미마센, 스미마센!! 왜냐하면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고개를 갸우뚱 하며..) 잘 안보에여.



사진설명

왼쪽: 소망속 연극:
소통하는 교인-참
새와 포수

오른쪽 위: 사랑속:
“조건없는 사랑”
찬양. 오른쪽 아래:
주일학교 어린
이 찬양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한국법 가이드 (14쪽에서 계속)

1.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의 국적 불문)
2. 미국인이 사망하였는데 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경우
3. 미국인이 사망하였는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각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이를 대신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는 사망후 6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와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난달의 마지막 날 기한 내 신고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상속재산 중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일괄 공제라 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외에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5억원 중 큰 액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배우자 공제라 합니다.

〈예1〉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12억원이고 배우자,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 19쪽으로 계속>



세례요한은 누구인가? (12쪽에서 계속)

이유는 심판 날이 임박했다는 그의 확신 때문이다. 그는 “오실 자”가 나타날 때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실 자”는 종말 심판주가 된다.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결국 사복음서 모두 요한을 메시아이신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는 전령자로 소개하는 데에는 일치한다. 예수의 사역을 준비한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민중의 지도자였으며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자 요한은 사역에서 물러나 있음을 복음서들이 언급한다(마 4:12, 막 1:14, 뉘 3:20, 참조, 요 3:23-24). 요한은 막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깨달아 듣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준비시킨 예언자로 기억될 것이다. 요한의 출현과 설교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 것임을 마태복음 11: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란 난해 구절에 의해 입증된다. 결국 복음서들은 요한과 예수를 동시에 소개하면서도 예수의 사역은 요한에게 종속된 사역이 아니라 독립된 메시야의 사역이고 예수는 요한보다 우월한 분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공생애 이전에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요한이 각 복음서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게 될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엘리야는 종말 때에 재림하여 메시야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예언자라는 전승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왔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대항하는 예수의 동료로 본다. 마가복음은 요한이 자신의 고난으로 예수의 운명을 미리 예언한 엘리야라고 묘사한다. 이런 요한의 삶은 당시 고난 받는 크리스챤들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유아기가 예수와 인척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출생에 대한 내용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분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누가에 의하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기에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으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인척관계 때문에 예수에게 요한은 서로 사촌이 된다(눅 1:36).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를 위한 칭호인 “오실 예언자”가 아니고 종말 때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취급된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들로 증거하는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인 증거자로 묘사되었다. 사도행전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요한의 운동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두 기록이 있다(행 18:24-28, 19:1-7).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말했다(행 18:25).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행 19:3).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였고 에베소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였다(행 19:5-6). 요한이 시작한 운동이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어 최소한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퍼졌다 사실은 요한의 설교와 세례가 예수를 포함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 역시 많은 대중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처형하였다. 복음서 기자들은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요한을 예수와 함께 소개하면서 예수보다 낮은 자로 또는 예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원 가입 신청서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Membership Application / Renewal

회원 성명 Member Name 한글 _____ English _____

배우자 성명 Spouse Name 한글 _____ English _____

주소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

전화 Telephone 집 Home _____ 핸드폰 Mobile _____

직업 Occupation _____

이메일 Email _____

1년 회비* Membership Fee Per Year*

<input type="checkbox"/> 정회원 Individual \$30.00	<input type="checkbox"/> 가족 정회원 Family \$40.00
<input type="checkbox"/> 임원 Admin. Staff \$50.00	<input type="checkbox"/> 이사회비 Board of Director \$200.00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Donation \$ _____	

신청서와 회비를 보내실 주소:

Please mail application & check to:

KAAN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관심 있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ll your areas of interest.

<input type="checkbox"/> 한글반 Korean Language Class	<input type="checkbox"/> 영어반 English Language Class
<input type="checkbox"/> 고전무용반 Korean Folk Dance Lesson	<input type="checkbox"/> 문화활동 Cultural Activities
<input type="checkbox"/> 오락, 친교 Entertainment, Fellowship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여가 Sports & Recreations
<input type="checkbox"/> 건강, 복지 Health & Welfare	<input type="checkbox"/> 모금행사 Fund Raising Activities
<input type="checkbox"/> 회보, 간행물 Newsletter & Publications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 _____

재능 또는 도울 수 있는 일 Your special skills or expertise:

건의 사항 Ideas and Suggestions:

날짜 Date _____ 서명 Signature _____

* 뉴멕시코 한인회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서 IRS 501 (C)(3) 규정에 의거 연세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체임으로 회비 및 기부하신 금액은 세금보고 시 수입에서 공제 (tax deductible) 하실 수 있습니다.
*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is a nonprofit, tax exempt 501 (C)(3) corporation under the IRS code, and all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are tax deductible.

한국법 가이드 (17쪽에서 계속)

상속재산은 12억원입니다.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4억원, 자녀 3명은 약 2억 6700만원씩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액수가 5억원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원이 됩니다. 상속 재산 (12억)에서 일괄공제 (5억)와 배우자공제(5억)을 뺀 2억원(12억-5억-5억=2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예2〉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2억원, 자녀는 8억원을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액수가 5억원보다 를 경우 배우자 공제액수는 배우자의 상속액입니다. 상속재산 (20억)에서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공제(12억)를 뺀 3억원(20억-5억-12억=3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상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상속세 대상)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이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의 예2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20억)에서 공제를 하고 난 3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2억원 x 10% + 2억원 x 20%로 5000만원이 됩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 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월도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 Albuquerque, 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4312 Coors SW (505) 877-2777	Suite C, ABQ (505-830-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코너 1410 Wyoming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택융자 Loan Officer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부동산 Realtors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신장개업 2015.1.9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한의사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아파트 Apt Rent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 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Apt for rent 2 beds 1 bath Home service (민박)도 합니다 연락처: (505)235-1323 또는 (505)-298-0367	종교 Church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의류 Clothes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Park Fine Art Gallery
	Kelly Liquors #1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 87104 (505-764-1900)	카페/ 선물 Cafe/Gift -----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 87004 (505) 867-5838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2244 -----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3960 -----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3206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 88101 (575)762-8660 ----- 화밍تون Farmington ----- 종교 Church -----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 상점 Store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화원/원예 Nursery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종교 Church -----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병원 Clinic -----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 88011 (575- 556-0200)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 87002 (505) 864-2242 -----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 87002 (505) 916-5656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사진관 Photo -----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 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백화점 Mart -----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편집후기 성가대원중 한분이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멜로 보내주신 글이 재미있어서 이번호에 실을 계획이었으나 지면이 모자라 실질 못했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가대원은 암에 잘 안걸린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살해(殺害) 세포’ (NK-Natural Killer Cell)가 있는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서는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은 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의학계의 정설을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 모두 밝게 사셔서 건강의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편집인 이경화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5년 5/6월호 발행일 : 2015.5.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www.abqsushiandsake.co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